

## 계층별 소비자 물가 분석

이태열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거시경제학(經博)

홍순진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경제학

소득 주거별로 물가지수를 산정한 결과, 80년대 후반에는 고소득층의 물가가, 90년대에는 주로 저소득층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거비, 식료품, 공공 요금의 물가가 저소득층의 상대적 고물가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올해 물가 관리에도 세심한 대책이 요구된다.

### 머리말

#### 통계청

계청은 도시 가구가 가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매월 조사하고, 소비자 지출 구조와 지출 품목별로 가중 평균하여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지수는 경제 전체의 상황 변화를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가 지수 물가와 많은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 원인은 크게 재화별 구입 빈도수의 차이와 가계별 소비 구조의 차이로 요약할 수 있다. 소비자는 지출 비중이 적더라도 자주 구매하는 재화의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마련인데 여기에서 구입 빈도수의 문제가 발생한다. 흔히 '장바구니 물가'라고 지칭되는 채소류, 어패류, 곡류, 육류 등의 가격 변화가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통계청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 생필품지수,

신선식품지수, 구입 빈도별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 가계간의 소비 구조 차이를 들 수 있다. 소비 구조는 가계 구성원의 특징 또는 소득 계층별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학생의 수가 많을수록 교육비에 민감할 것이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교양·오락비의 변동이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특히, 소득 계층별 물가 변동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어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고는 바로 소득 수준별 소비 구조의 차이를 분석하여 계층별 물가지수를 산정하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물가를 총량적 개념보다 계층별 영향을 고려하는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계층별 물가지수의 성격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도시 가계 조사'를 근거로 가계 소비 지출 총액의 1/10,000 이상 지출되는 품목을 조사 대상으로 하며 대상 품목은 총 470 개이다. 가중치 산출의 기준 연도는 5년마다 한번씩 변경하는데, 현재는 아직 1995년 기준치가 산출되지 않아 1990년을 기준으로 하

고 있다. 전체 물가를 대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들 개별 품목의 물가지수를 가중 평균하는 라스파이레스(Laspeyres)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다.

본고는 '도시가계조사'의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계층별 10분위 조사를 근거로 1985년부터 1995년까지의 계층별 물가지수를 산정하였으며, 가능한 한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지수의 산출 방식에 있어서도 소득 계층별 가중치를 구하는 사전 작업을 제외하고는 개별 물가지수를 가중 평균하는 라스파이레스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계층별 자료의 한계때문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 첫째, '도시가계조사'의 소득 계층별 자료는 소득 기준이 애매한 자영 업자와 자유 직업자 가구의 소득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가구 또는 봉급 생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중치 산출에 있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쉐가구의 소비 지출 구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계층별 물가지수는 소득 조사가 가능한 가장 큰 모집단인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근로자 가구의 소득 계층별 자료는 소비 지출을 9 개의 대분류와 44 개의 중분류로 나누고 있으나 각 항목내 세부적인 품목별 자료는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 대상 품목이 470 개에 달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이 세부적인 가중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

물론, 중분류에 기초한 분석도 계층별 차이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하지만, 중분류 내의 세부 항목간에 발생하는 계층별 소비 패턴의 차이는 고려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소비 지출의 중분류 항목인 '잡비'는 지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잡비' 항목의 경우, 경조비, 조세 관계비, 회비 및 교제비, 숙박비, 손해보험료, 수수료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에서 숙박료와 수수료만이 물가지수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게다가 전체 지수에서의 가중치도 각각 7/10,000, 8/10,000에 불과하기 때문에, '잡비' 항목 제외는 전체적인 지수의 타당성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층별 물가지수의 1990년 기준 가중치는 총 43 개의 소비 지출 항목과 전세 평가액을 포함한 총 44 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1985년 기준 가중치와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1985년 기준 가중치에서는 '교통·통신'의 중분류인 '개인 교통'이 '공공 교통'과 합쳐져서 '교통'이라는 항목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주거비' 항목에 포함되는 '기타 주거비'의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계층별 물가지수의 1985년 가중치는 41 개의 소비 지출 항목과 전세 평가액을 포함하는 총 42 개 항목을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계층별 물가지수**

불가의 계층별 차이는 소비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은 '전세 평가액', '월세', '곡류', '채소·해초', '공공 교통' 항목의 지출 비중이 고소득층보다 높으며, 고소득층은 '개인 교통', '교육', '일반 가구', '외식', '외의', '교양·오락', '장신구' 등의 지출 비중이 높다. 따라서 전자의 물가 상승률이 후자의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저소득층의 물가 상승률과 가계 부담이 고소득층의 그것보다 높게 될 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의 물가 상승률과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될 것이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은 계층별로 차이가 있다. 1986년, 1992~94년에는 I분위의 가계가, 1991년에는 V분

위의 가계가, 1995년에는 IX분위 그리고 1987~90년에는 X분위의 가계가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나타냈다. 물론 1986년, 1987년과 같이 계층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989년, 1993년, 1994년의 계층별 물가 상승률은 그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분위 전체에 대한 결과는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표 3>은 계층별 10분위에 대해서 구해진 결과를 3분류로 통합하였다. 1~3분위의 단순 평균을 저소득층으로, 4~7분위를 중간소득층, 8~10분위를 고소득층으로 통합하여 물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항목별로 고물가 상위 5개 항목과 저물가 상위 5개 항목을 구한 다음 해당 항목이 가장 많은 가중치를 갖는 계층을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표 3>에 따르면 80년대 후반에는 고소득층

**<표 1> 소득 계층별 지출 비중이 차이 나는 소비 항목**

		(%)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 저소득층					고소득층 →				
저 소 득 층 위 주	전세평가액	13.1	13.7	13.7	12.6	11.4	10.6	9.6	7.6	6.6	4.2
	월세	5.2	4.4	3.7	3.1	2.6	2.3	1.9	1.7	1.1	0.6
	곡류	8.9	8.2	7.4	7.3	7.0	7.3	7.0	6.7	6.1	4.7
	채소·해초	5.0	4.7	4.4	4.2	4.0	3.9	3.9	3.6	3.4	2.8
	공공 교통	4.2	4.0	3.7	3.6	3.5	3.7	3.6	3.5	3.4	2.9
고 소 득 층 위 주	일반가구	0.8	0.7	0.9	1.0	1.1	1.2	1.6	1.8	1.8	2.4
	장신구	0.6	0.6	0.6	0.7	0.7	0.9	0.9	1.0	1.1	2.2
	교육	6.1	5.2	6.8	6.4	6.9	7.4	8.0	8.7	8.9	8.8
	외식	5.1	6.0	6.3	6.7	7.4	7.4	7.3	7.7	8.2	8.9
	교양·오락	2.9	3.3	3.8	4.1	4.1	4.2	4.0	5.3	5.4	6.1
	외의	3.6	3.9	4.2	4.5	4.8	4.9	4.9	5.5	5.6	7.1
	개인교통	0.4	0.6	0.6	1.3	1.5	1.7	3.8	4.3	4.7	8.9

의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다가 90년대는 저소득층의 물가가 높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1986~89년 사이에 고소득층에서 많이 쓰이는 항목이 5 개 가운데 4 개 품목씩 포함되어 있는 반면, 1992~94년 사이에는 그 빈도수가 크게 낮아짐을 볼 수 있다. 고물가 상위 5 개 품목도 80년대와 90년대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80년대에는 주로 '어개류', '음료', '채소·해초' 등 주로 식료품 관련 항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90년대에는 '피복·신발 서비스', '가사 서비스', '공공 교통', '기타 주거비' 등 주로 서비스 관련 항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관계로 참고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계층별 물가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원인의 파악을 위해서는 가중치의 크기와 그 가중치의 세대별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여율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4>는 가중치와 물가 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가 기여율을 통해서 계층별 물가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계층별 물가의 차이가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1989년과 1993~94년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의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1989년의 경우, 교육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외의, 외식, 주택 설비 수리가 계층별

(표 2) 도시 근로자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

(%)

연도	I분위	I	II	← 저소득층			→ 고소득층 ←			
				IV	V	VI	VII	VIII	IX	X
1986	2.40	2.37	2.33	2.38	2.37	2.39	2.39	2.37	2.33	2.32
1987	2.71	2.70	2.69	2.73	2.70	2.72	2.72	2.71	2.74	2.87
1988	6.35	6.34	6.39	6.39	6.38	6.39	6.39	6.35	6.42	6.49
1989	4.57	4.69	4.84	4.97	4.91	4.98	4.98	5.07	5.17	5.42
1990	7.97	7.94	8.01	8.14	8.09	8.11	8.10	8.11	8.14	8.28
1991	9.56	9.64	9.62	9.61	9.68	9.59	9.63	9.51	9.58	9.36
1992	6.27	6.23	6.25	6.21	6.20	6.18	6.22	6.20	6.18	6.10
1993	5.05	4.91	4.93	4.83	4.80	4.80	4.80	4.76	4.71	4.45
1994	6.81	6.71	6.62	6.54	6.52	6.52	6.50	6.38	6.33	5.89
1995	4.28	4.20	4.33	4.33	4.39	4.40	4.48	4.51	4.58	4.37

물가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1993~94년의 경우는 전세 평가액과 월세의 주거비, 채소·해초류와 곡류의 식료품, 공공

1) 3 개 계층으로의 분류는 소득 계층을 다시 3 개 부류로 나누어 재조사한 것이 아니라 10분위 계층별 물가의 결과를 단순 평균한 것임.

〈표 3〉 계층별 물가 상승률

연도	계층별 물가지수			고물가 상위 5 항목		저물가 상위 5 항목	
	低	中	高	품목명	상승률	품목명	상승률
1986	2.37	(2.38)	2.34	어개류 (高)	16.78	유지조미료 (中)	-9.01
				음료 (高)	7.32	과실 (高)	-3.71
				통신 (高)	6.27	육류 (高)	-2.99
				가정용 가구 (高)	5.77	전기료 (高)	-1.57
				곡류 (低)	5.59	연료 (低)	-1.10
1987	2.70	2.72	(2.78)	과실 (高)	19.57	유지조미료 (低)	-7.51
				채소·해조 (低)	9.02	육류 (高)	-5.89
				어개류 (高)	7.87	음료 (高)	-3.00
				식기주방용품 (高)	7.62	전기료 (高)	-0.28
				장신구 (高)	7.37	유란 (中)	0.25
1988	6.36	6.39	(6.42)	채소·해조 (低)	25.82	음료 (高)	-5.34
				피복·신발 서비스 (高)	21.03	가정용 가구 (高)	-2.80
				육류 (高)	13.86	연료 (低)	-1.40
				어개류 (高)	12.90	유란 (中)	-1.14
				침구·직물 (高)	11.44	전기료 (高)	-0.75
1989	4.70	4.96	(5.22)	유란 (中)	21.48	통신 (高)	-11.13
				외의 (高)	17.65	유지조미료 (低)	-9.96
				외식 (高)	15.44	장신구 (高)	-6.78
				어개류 (高)	15.16	전기료 (高)	-3.99
				피복·신발 서비스 (高)	14.64	가정용 가구 (高)	-1.99
1990	7.98	8.11	(8.18)	피복·신발 서비스 (中)	19.33	전기료 (低)	-1.09
				유지 조미료 (低)	17.65	수도료 (低)	0.10
				가사 서비스 (高)	16.82	음료 (低)	0.50
				육류 (中)	15.47	연료 (低)	1.42
				외식 (高)	14.29	가정용 가구 (中)	1.42
1991	9.61	(9.63)	9.49	과실 (中)	35.80	통신 (低)	-3.50
				가사 서비스 (高)	23.70	장신구 (高)	0.80
				외식 (高)	19.80	가정용 가구 (中)	0.90
				기타 주거비 (高)	18.60	내의 (低)	1.70
				피복·신발 서비스 (高)	16.80	담배 (低)	1.80
1992	(6.25)	6.20	6.16	가사 서비스 (高)	18.19	육류 (中)	-0.36
				공공 교통 (低)	13.93	통신 (低)	-0.21
				기타 주거비 (高)	11.30	일반 가구 (高)	-0.19
				전기료 (低)	11.00	담배 (低)	0.00
				유지 조미료 (低)	10.41	가정용 가구 (中)	0.20
1993	(4.96)	4.81	4.64	공공 교통 (低)	15.55	과실 (中)	-9.83
				기타 주거비 (高)	15.38	통신 (低)	-0.62
				피복·신발 서비스 (高)	11.65	가정용 가구 (中)	0.00
				교육 (高)	10.16	육류 (中)	0.09
				주류 (低)	8.65	의약품 (高)	0.09
1994	(6.71)	6.52	6.20	채소·해조 (低)	26.99	통신 (低)	-2.51
				담배 (低)	21.39	가정용 가구 (中)	-1.48
				과실 (中)	20.95	개인 교통 (高)	-0.96
				공공 교통 (低)	15.22	전기료 (低)	0.00
				기타 주거비 (高)	14.38	직물, 실 (中)	1.72
1995	4.27	4.40	(4.49)	문방구 (低)	18.64	채소·해조 (低)	-6.96
				교육 (高)	12.79	가정용 가구 (中)	-5.52
				수도료 (低)	12.56	통신 (低)	-2.36
				과실 (中)	12.36	장신구 (高)	-0.90
				유지 조미료 (低)	10.95	육류 (中)	-0.61

주: 1) ( )는 해당 항목의 가중치가 가장 큰 소득 계층임.

2) 1986~89년의 가중치는 1985년, 1990~95년은 1990년을 기준으로 함.

3) ○는 가장 높은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나타냄.

〈표 4〉 계층별 물가 차이의 주요 원인

연도	평균 물가 상승률			계층별 차이의 주요 원인이 된 항목	물가 상승 기여율 (%)		
	低	中	高		低	中	高
1989	4.70	4.96	5.22	교육	6.95	8.48	12.40
				외의	10.90	12.10	15.10
				외식	6.14	8.12	10.10
				주택 설비 수리	1.03	1.87	2.99
1993	4.96	4.81	4.64	전세 평가액	14.90	12.60	7.26
				월세	5.69	3.29	1.58
				곡류	9.94	8.96	7.58
				채소·해초류	7.51	6.60	5.58
				공공 교통	12.50	11.80	11.00
1994	6.71	6.52	6.20	채소·해초류	19.61	17.20	14.80
				전세 평가액	7.45	6.29	3.69
				월세	3.11	1.80	0.88
				담배	4.31	3.75	2.93

주: 물가 상승 기여율은 10 개 계층별 가계의 기여율을 모두 구한 다음 3 개 소득 계층으로 나누어 단순 평균한 것임.

교통과 같은 서비스 공공 요금, 그리고 담배와 같은 항목이 계층별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계층별 물가는 80년대 후반에는 주로 고소득층에게 90년대에는 주로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상승하였다. 저소득층의 상대적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주거비, 식료품, 공공 요금 등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큰 항목에서 물가가 불안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비 관련 물가는 조금만 높아져도 심한 계층별 가중치 차이로 인해 상대적인 물가 압력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정부의 물가 대책도 <표 2>에서 나타난 저소득층 위주의 지출 항목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의 물가 사정은 전체적인 안

정 여부를 떠나서 계층별로는 그 상대적 차이가 확대될 불안한 조짐이 있다. 그간 침체되었던 부동산 경기의 회복 기대와 금리 하락으로 인해 주택 가격의 상승이 예측되고 있으며, 공공 요금과 식료품 가격은 벌써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작년에 매우 안정되었던 농산물 가격이 급년에 해저리 현상으로 크게 상승할 경우, 계층간 물가는 심한 불균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공공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 경기의 과열 방지와 농산물의 수급 조절을 통한 물가 불안 통제에 최선을 다해서 계층별 물가 차이를 줄이는 데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